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 1946년 10월 26일 창간 | i-honam.com | 제 3077호 | (음력 12월 16일)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녹차와 굴비의 만남' 영광군·보성군, 특산품으로 상호 윈윈

영광군·보성군·영광수협·보성차생산조합 협약 체결
신제품 개발·유통·품질관리 등…오는 7월 출시 목표
최근 소비 트렌드 맞춰 '반조리형 결합상품' 준비 중

굴비골 영광군과 녹차수도 보성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녹차와 굴비를 결합한 '신(新) 특산품' 개발에 손을 맞잡아 관심을 받는다.

영광군은 27일 군 청사에서 김준성 영광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 서재창 영광수협조합장, 박동호 보성차생산자조합장 등 4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 개발·유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단체 중 영광군과 보성군은 신제품 개발과 유통 지원하고, 영광수협은 수산물 구입과 신제품 판매를 맡는다.

보성차생산조합은 안정적인 녹차 원료 공급과 제품 판로 확보, 품질관리 등을 담당한다.

영광군과 보성군은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논의 중인 신제품은 녹차굴비·녹차소금·녹차굴비장아찌·녹차유를 이용한 굴비튀김 등이다.

양 지자체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조리형 결합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보성군은 남부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통해 녹차굴비, 녹차소금 등에 쓰일 녹차 추출물 효능 검증을 마친 상태다.

양 지자체는 신상품 개발이 완료되면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박람회를 비롯한 SNS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결합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기존 굴비뿐 아니라 녹차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양 지자체가 우호협력을 통해 신속히 개발할 경우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특히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두 지역 대표 특산품을 이용,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을 하게 됐다"며 "상생과 협력의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보성=김덕순 기자

27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김준성 영광군수(왼쪽 두 번째)와 김철우 보성군수("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개발 협약이 체결됐다.

광주 대형교회 'TCS국제학교 집단감염' 확산 뇌관되나

IM선교회 비인가 교육시설 연쇄 감염
교인 2000여 명 '안디옥' 부목사도 확진

전국 규모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에서 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추가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관련기사 9면〉**

27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닷새 간 광주에서는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이달 18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 합숙 교육을 받은 광주TCS 국제학교(광산구 한마음교회)에서는 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 보육시설 n차 전파까지 이어진 에이스TCS 국제학교(북구 빛내리교회)에서도 37명이 확진으로 판명됐다.

이날 오후부터는 신도 2000여 명에 이르는 광주 서구 마륵동 안디옥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안디옥교회 부목사(광주 1652번째 확진자)의 자녀로 알려진 광주 1639번째 환자가 광주 TCS 국제학교 내 합숙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추가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6세~19세 학생 등 10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27일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였던 부목사가 지난 24일 5차례로 나눠 진행한 예배 중 설교자로 나섰다. 해당 예배에는 교인 553명이 100여 명 단위로 시간 간격을 두고 예배를 봤다.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 교인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수차례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교인 신분을 숨기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부에선 교회에 미칠 불이익 등을 우려해 조직적인 진단 검사 불응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도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 진술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 교인 관련 검사가 진척이 더딜 경우, '검체 채취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기동취재본부

여수·광주 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

산업부, 기존 산단에 '디지털·그린' 융합 미래형 혁신 산단으로 확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여수·광주첨단·대구성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이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다. 28일과 다음 달 3일에는 각각 광주첨단, 대구성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디지털·그린'을 융합한 미래형 혁신 산단으로 한국형 뉴딜을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역별로 7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산단은 경남 창원(지능형 기계), 경기 반월시화(데이터 기반 첨단 부품), 인천 남동(소재·부품·장비), 경북 구미(전자 융합), 대구 성사(전기차·로봇·기능성 섬유), 광주 첨단(인공지능 기반 미래차), 전남 여수(정밀 화학) 등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산단이 위치한 각 지역 '산단 대개조' 작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도 맡게 된다.

사업단은 산단 내에 설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기관, 지역 대학교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전남여수 산단은 현재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고부가 정밀화학 산업으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산단 내 화학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통합 관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첨단 산단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스마트 인력 양성 사업 등도 진행한다.

대구성서 산단은 기능성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차·로봇 등 신산업을 키워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7개 사업단과 함께 산단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공통 기본 사업, 산단별 특성화 사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유형화하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신제품 개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